

시편 제6편

신성근 신부

제6편은 다윗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독하여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하느님께 눈물로써 부르짖는 ‘개인탄원시편’이다.

이 시편은 우리야의 아내가 낳아 준 아이를 주님께서 치시어 큰 병이 들었을 때,¹⁾ 다윗이 탄식하며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1.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제8도로.²⁾ 시편. 다윗]

2.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1)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바로 주님의 진노요 분노로 인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앓고 있는 것임을, 즉,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것은 하느님이 치신 것(2사무12,15)임을 깨달았다.

2) 나탄의 꾸지람³⁾을 듣고 즉시 회개한 다윗에게 아들을 잃는 고통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통해 죄악의 흔적을 없애 주시며 다윗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의 나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고통을 당할 경우가 있다. 이는 내 잘못 때문이요, 하느님께서 이를 통해 자신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 예레 10,24 : 주님, 저를 고쳐 주시되 공정하게 해 주소서. 저를 진노로 다루지 마시어 저를 없애지 마소서.

3.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4.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 ?

1) 다윗은 먼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다윗은 어린아이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어린아이를 위하여 호소한다. 탄식하며 바닥에 누워 밤을 지내니 자신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린다고 호소하는 것이다.다.

2) 그리고 영혼의 고통을 호소한다. 육신이 쇠약해지니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다.

1) 2사무 12,16-23 참조

2)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3) 2사무 12,1-15 참조.

4) 2사무 11, 27에 따르면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고 서술하지 구체적인 이름이 없다. 그리고 2사무 12,15-16에서는 ‘어린아이’로만 말하고 있다. 아마도 죄로 인한 출생이기에 의도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은 듯하다(필자의 자의적 설명).

이 병이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으니,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하며 그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 * 예레 17,14 : 주님, 저를 낮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5.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 1) 고통 중에 있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느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자비로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시편51,12) 기도한다.
 - 2) 우리는 죄에 빠져 절망할 때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분의 자애 곧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쉽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당신의 성령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 * 잠언 3,11-12 :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6.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⁵⁾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 1)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주님을 기억하지도 찬송하지도 못한다며,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한다.
 - 2)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다윗의 속내는, 아이가 살아서 하느님의 자애를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 주시면 다윗 자신도 더욱 하느님을 찬송하겠다는 인간적인 소망도 담긴 듯하다(2사무 12,22-23 참조).
- * 이사 38,18 : 저승은 당신을 찬송할 수 없고 죽음은 당신을 찬양할 수 없으며, 구령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성실하심에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

7.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 1) 다윗이 탄식으로 기진한 이유는 죄책감에 따른 통곡 때문이다. 자신이 거만함

5) 민수 16,31-33. “저승”(히브리말로, 쉼)은 지하세계로서 죽은 이들이 그곳에서 축소된 삶을 영위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어둠과 먼지 속에 사는 “그림자”로 불리기도 하였다(주석 성경 ‘시편’, 64쪽 각주 5).

으로 하느님보다는 여인에게 눈이 멀어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자신의 죄(1사무 11.1-27 참조)로 인하여 통고하는 것이다.

2) 다윗은 자신의 죄로 어린아이까지 죽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그는 단식하며 눈물과 통곡 속에 하느님께 기도하였다(2사무 12.16-17 참조).

3) 하느님은 거만한 자를 벌하시지만,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는 그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 이사 1,18 : 오너라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8.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다윗은 반역자들로 인한 근심으로 시력이 떨어졌다. 다윗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적들이 다윗을 비판하고 들고 일어났다.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였다. 다윗은 통곡하며 적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청한다. 다윗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자애로운 하느님뿐이다.

9.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10.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1) 다윗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나쁜 짓하는 반대자들 보고 물러가라 호통을 친다. 하느님께서 다윗의 울음소리, 곧 자신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한다.

2)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어린아이를 잃었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아들 솔로몬을 주셨다.

* 마태 7,23 :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병행 : 루카 13,27 참조).

11.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전보다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적들을 대항할 굳은 힘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채찍은 그분 사랑의 표현이며,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손짓입니다. 당신께 다가오는 자는 지난날을 묻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끝.